

## 4월 셋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대전일보** 한국 e-스포츠산업 국외진출 대전이 앞장선다 (p. 1)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18262](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18262))

 **beauty nury** 동남아 전자결제 시장 유망, 국내 기업 관심 필요 (p. 2-3)  
화장품신문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8284/cat/10/page/1>)

 **한겨레** '한국 관광 선호도' 필리핀·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았다 (p. 4)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36797.html>)

 **아시아경제** "韓-아세안 FTA, 韓-印 CEPA 개정해 자유화 수준 높여라" (p. 5-7)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1323084196659>)

## 한국 e-스포츠산업 국외진출 대전이 앞장선다

2020-04-12기사 편집 2020-04-12 15:36:21

대전e스포츠 협회, 인도네시아와 업무협약 체결..국내게임 배급 길 열려



대전e-스포츠협회는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e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디림 인도네시아e스포츠협회장(왼쪽)과 김덕건 한국e스포츠협회 대전지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대전지회 제공

대전이 국내 e-스포츠(온라인게임) 산업의 세계 진출에 앞장선다.

대전e-스포츠협회는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개발, 인재 양성, 공동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형성 등에 협력한다.

에디 림 인도네시아e-스포츠협회장은 협약식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때 타 협회와는 처음 체결한 업무협약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갖는 만큼, 모바일 및 온라인 게임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모바일과 PC게임 시장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동안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게임 배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시장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e-스포츠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달 엑스포과학공원 첨단 과학관에 관람석 500석 규모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13일에는 대전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2019 대전시장배 e스포츠 한밭대전'을 열기도 했다. 경기장이 완공되면 국내외 e-스포츠 대회를 다수 유치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덕건 한국e스포츠협회 대전지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게임 시장가치는 10억 달러 이상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e-스포츠 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대전지역 유망 게임업체들을 추천받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 동남아 전자결제 시장 유망, 국내 기업 관심 필요

양혜인 기자 입력시간 : 2020-04-13 10:30 최종수정: 2020-04-13 10:32

전자상거래 확대, 두터운 젊은 인구층 등으로 빠르게 성장



화장품 수출 유망국가로 꼽히는 동남아에서도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아세안 전자결제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확대, 금융 인프라 발전, 두터운 젊은 인구층 등으로 인해 아세안 전자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9년 아세안 전자결제액은 8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며 2020~2023년 연평균 11.2% 성장해 2023년 13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아세안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 인터넷 이용 증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어 전자결제액도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등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19년 1304억 달러로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해 22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소비자의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0~2025년 연평균 7.3%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의 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중은 2019년 50.9%에서 2025년 68.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자상거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어 모바일이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액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는 은행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보급돼 있지 않아 현금 결제 비중이 높고 카드 사용률은 낮은 편이다.

전자상거래에서도 물품 수령시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Cash on Delivery)을 선호해 사실상 현금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전자상거래 결제 비중은 필리핀 43.5%, 인도네시아 70.2%, 태국 71.7%에 불과해 현금 거래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아세안 정부는 무현금(Cashless)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 인프라 확대를 통한 사회 정책이 전자결제 시장의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아세안은 모바일 및 인터넷과 친숙한 젊은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전자결제 시장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의 35세 미만 인구 비중은 2019년 57.8%로 선진국보다 크게 높고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전자결제 시장은 신규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명확한 시장 장악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별 시장 상황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아세안 전자결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중국 전자결제 업체들은 중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전자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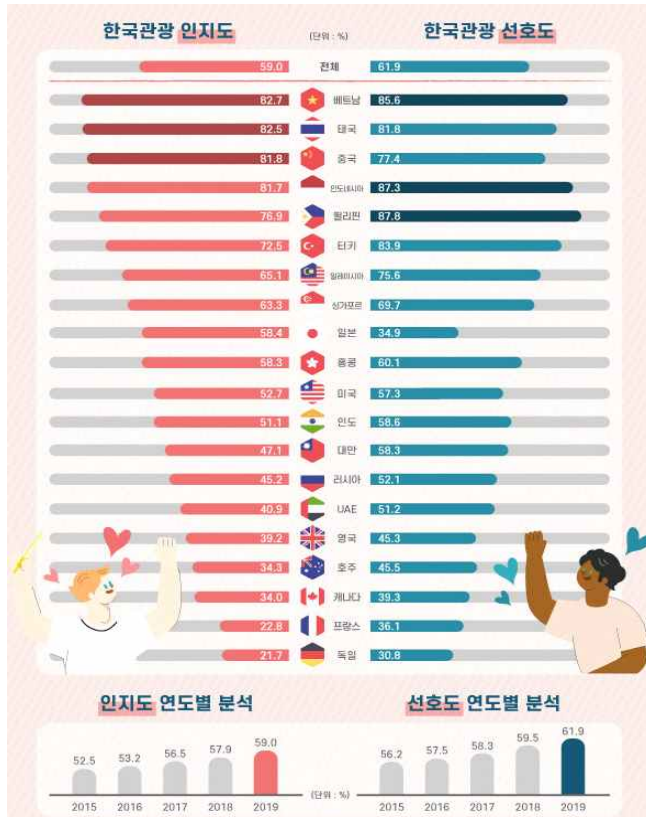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신성장연구실 유서경 연구원은 “아세안 전자결제 시장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적극적이며 시장 장악 기업 부재로 진입이 비교적 용이하다”며 “다만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최근 사이버 위협 증가로 인한 안정성 문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이 존재하는 것이 위협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는 금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으나 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은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도적 정비도 미흡하다”며 “아세안 현지 금융기관, 핀테크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 관광 선호도' 필리핀·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았다

등록 :2020-04-13 13:23수정 :2020-04-13 13:38

주요 20개국 조사 결과  
인지도는 베트남이 가장 높아  
인지도·선호도 6년 연속 상승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한 관광 '빅2'인 중국의 한국 관광 선호도는 조사대상 20개국 중 6위였고, 일본은 19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주요 20개국의 15~59세 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관광 인지도는 전년(57.9%)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59%, 선호도는 전년(59.5%) 대비 2.4%포인트 오른 61.9%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지도와 선호도가 각각 51.8%, 54.3%였던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관광공사는 "케이팝의 인기와 해외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 홍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관광에 대한 선호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3개 국가는 필리핀(87.8%)·인도네시아(87.3%)·베트남(85.6%) 순이었고 터키(83.9%)·태국(81.8%)이 뒤를 이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한국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전년 대비 각각 9.2%포인트, 5.7%포인트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방한 관광 2대 주력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한국 관광 인지도는 각각 81.8%(3위), 58.4%(9위)로 20개국 평균치인 59%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선호도는 중국 77.4%(6위), 일본 34.9%(19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관광에 대한 선호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3개 국가는 필리핀(87.8%)·인도네시아(87.3%)·베트남(85.6%) 순이었고 터키(83.9%)·태국(81.8%)이 뒤를 이었다.

관광공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는 신남방정책 추진과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에도 양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독특한 소재를 발굴해 국외시장 맞춤형 광고를 제작·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韓-아세안 FTA, 韓-印 CEPA 개정해 자유화 수준 높여라"

기사입력 2020.04.13. 23:11 최종수정 2020.04.13 23:11

||대외경제연구원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보고서  
||"양자 및 다자 FTA 체결 늘리고 2018년 개설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작업을 해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통상전략에 대한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나온 주문이어서 주목된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표 3.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

	석유정제	화학	전자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베트남	○	○	○	
태국	○			○
싱가포르	○			
필리핀			○	
인도				○

자료: 저자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신남방 국가' 중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다. 한국은 아세안의 주요국 대비 석유정제, 화학, 전자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농업, 광업, 서비스업에선 비교 열위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은 석유정제산업, 베트남은 화학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산업에서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잠재적으로 이들 국가의 해당 업종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표 5.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성장 유망산업(제조업 중심)

국가	5대 핵심산업 <sup>1)</sup>	고성장 예상산업(중·단기) <sup>2)</sup>
인도네시아	① 식음료 ② 석탄, 석유정제 ③ 수송장비 ④ 금속가공, 컴퓨터, 전자제품 등 ⑤ 화학, 의약품	식음료(할랄 포함) / 자동차 관련 산업 / 화학 / 기초금속 / 금속가공 / 컴퓨터, 전자제품
말레이시아	① 전자부품, 통신장비, 소비자가전 등 ② 정유 ③ 화학, 의약품 ④ 자동차 및 수송장비 ⑤ 식음료	전자 및 통신부품 / 자동차 및 수송장비 / 비금속광물 / 금속가공 / 식음료(할랄 포함)
미얀마	※ 제조업 데이터 부재	식음료 / 의류 / 건설 및 건축 자재 / 소비자가전 / 목재 및 목제품
필리핀	① 식품가공 ② 화학 및 화학제품 ③ 라디오, TV, 통신장비 및 가구 ④ 정유 및 연료 ⑤ 담배	식음료 / 화학 및 화학제품 / 건설 및 건축자재 / 자동차·부품
태국	① 식음료 ② 코크스 및 정유제품 ③ 화학 및 의약품 ④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⑤ 자동차	정유 / 화학 / 고무 및 플라스틱 / 자동차 관련 산업 / 식음료 / 기계 및 장비업
베트남	① 식음료, 담배 ② 섬유, 의류, 가죽 ③ 컴퓨터, 오피스 및 통신장비 ④ 가전제품 ⑤ 기초금속	기초금속 / 비금속광물 / 목재 및 목제품 / 고무 및 플라스틱 / 자동차·부품 / 통신장비 / 식음료 / 섬유, 의류, 가죽
인도	① 석유정제제품 ② 화학 및 화학제품 ③ 기초금속 ④ 식품가공 ⑤ 제약	식품가공 / 화학 및 화학제품 / 제약 / 고무 및 플라스틱 / 기계 및 장비 / 자동차·부품 / 전자

주: 1) 가장 최근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업종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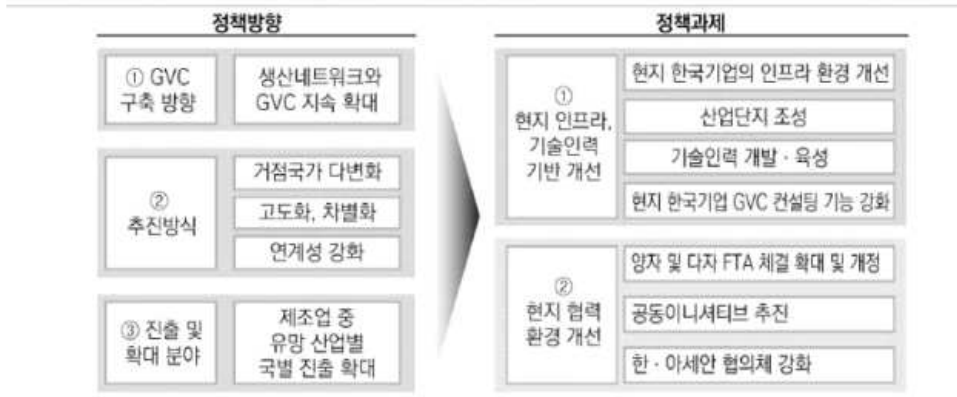
2) 해당국의 경제 및 산업 특성, 정부의 육성전략, 최근 성장추이 등을 토대로 추출한 것으로, 해당국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에 예상되는 산업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신남방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GVC)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 무역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특히 신남방국가들이 FTA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과 활발한 GVC 참여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세안이 추진한 역외국과의 FTA(ASEAN+1 FTA)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등이 있는데, 미얀마 등 일부 국가를 뺀 대부분 나라들은 양자 간 FTA 체결에도 적극적이다.

그림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정책 고도화를 위한 세 가지 방향과 두 가지 과제를 보고서는 제시했다. 정책방향은 ▲신남방지역에서의 생산네트워크와 GVC 확대 ▲거점국가 다변화, 고도화 및 차별화, 연계성 강화 ▲한국의 강점과 현지 유망산업이 결합된 분야에 집중 진출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현지 생산을 늘려 한국의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을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에 몰린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다. 인도도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새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필수적으로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신남방 지역에서 상품·서비스·자본·숙련 인력의 이동 자유화와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도 놓쳐선 안 된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는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전기전자는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섬유·의류는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와의 연계를 각각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할 경우 역내 국가 간의 가치사슬 이용 비중과 연계가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외 새로운 아세안 국가와의 가치사슬 연계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표 7. GVC 관련 정책과 산업별 수요에 기초한 유망 협력산업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식음료 가공	○	○	○	○	○	○	○
섬유						○	
의류			○			○	
가죽 및 가죽제품						○	
목재 및 목제품						○	
코크스, 석유정제제품	○	○			○		○
화학 및 화학제품	○			○	○		○
제약							○
고무 및 플라스틱					○		
비금속광물		○				○	
기초금속	○					○	○
금속가공	○	○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	○	○		○	
자동차, 트레일러	○						○
기타 운송장비	○						○
건설 및 건축 자재			○	○			

주: 음영 네모는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와 공통적인 산업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정책과제는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GVC 컨설팅 기능 강화 ▲FTA 체결 확대 및 개정, 공동이니셔티브 추진과 한-아세안 협의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일본에 공적개발금융에서 밀리기 때문에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단지 등 인프라 조성, 인적자원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 한국 내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 등을 활용해 해외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도 강화해야 한다.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맺어진 FTA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FTA를 맺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허수준이 낮은 아세안과의 FTA, 인도와의 CEPA 등은 개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과 인도 등과의 공동이니셔티브(JI)를 개설해 GVC 구축 지원, 비즈니스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요구 등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한-아세안 협의회 역할 강화해 비즈니스 애로와 경영실태 등을 조사한 뒤 아세안 측에 개선사항이나 해결 방안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에 개설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AAKC)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귀띔했다.